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299>

JCCT 2024-9-35

#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관광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in the Metropolitan Area-

권문호\*, 심홍보\*\*

Moon-Ho Kwon\*, Hong-bo Shim\*\*

**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 관광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광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50부 중 21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과 가설 3은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가설 2는 부분 채택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전공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 및 수업만족도, 교과목별 맞춤형 교수법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학생들의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앞서 전공 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전략, 교수와 학생간의 취업상담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시 된다. 특히 전공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환경,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수상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취업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시 된다.

**주요어** : 관광전공,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how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in the metropolitan area affec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ourism-related fields from April 1 to May 31, 2024, and 217 out of a total of 250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hypotheses 1 and 3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and hypothesis 2 was partially accepted. Therefore,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study is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such as developing educational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majors,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and classes, and customized teaching methods for each subject, and prior to students' full-scale job preparation activities. There is a need to improve individualized employment strategies for major students and employment counseling method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employment preparation system through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s, curricula, educational programs, and professor consultations where major students can make their own career decisions.

**Key words** : Tourism Major,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정회원, 동양미래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제1저자)

\*\*정회원, 오산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20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5일

Received: June 20, 2024 / Revised: July 15, 2024

Accepted: Sept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hbshim@osan.ac.kr

Dept. of Hotel&Tourism Management, Osan Univ, Korea

## I. 서 론

대학 생활은 경제적 독립과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다양한 역할들의 경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발달과업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1], 대학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습득하게 하고 대학 재학 중에 전공 활동에 만족할 수 있도록 대학과 각 학과는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 수준이 높아지며,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전공에 만족한 학생들이 많을수록 원활한 교수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은 전공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며, 미래의 진로결정에 전공이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학 생활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직업을 결정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전공은 자신이 선택하는 미래의 진로와 연관이 있고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진로를 선택하면 전공에 대한 불만족과 혼란을 발생시켜 취업준비행동 뿐만 아니라 취업 후 업무 적응 및 이직 의도를 높이게 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송윤정(2013)[3]은 잘못 선택되어진 대학 및 전공은 대학 생활의 부적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졸업 후에는 전공과는 다른 직업을 갖게 되거나 직업 환경의 부적응으로 잦은 이직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김은희(2016)[4]는 대학에서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는 것을 뜻하며,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과에 대한 애착 및 전공분야와 연관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대학 생활에서 전공은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이며,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첫 선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만 진로결정 및 행동 실천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천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는[5]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주된 목적이 진로와 취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효과적인 취업준비행동이[6]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연구에서 고찰한 이론과 준거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과 인지·감정들의 복합체이며,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대한 만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상태를 뜻하며, 태도, 가치, 신념 및 욕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Wallace와 Walker(1990)[8]는 전공만족도에 관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전공만족도의 개념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함은 물론 직업적 개념을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rueger(1993)[9]는 취업 의지에 대해 미래에 스스로 취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취업 여부의 개념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공만족도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이 예측된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의 적응, 취업준비행동, 진로태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광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설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77)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신념을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10]. Hackett와 Betz(1981)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응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진로 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진로자기 효능감(Career Self-efficacy)라고 명명하였다[11].

이명숙(2002)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활발해 진다고 분석하였으며, 이학주(2000)는 자신의 진로 결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분석하였다[12].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준비, 계획, 실행, 평가에 대한 자신감으로 진로선택 및 적응과 관련된 개인의 평가와 자신의 직업 발전 과정을 촉진시키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유능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의 탐색이나 선택 및 준비 등과 같은 진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직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이다[13].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광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설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구직행동이나 직업탐색 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로 실제 구직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이력서 작성, 면접 대비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14]. 이제경(2004)은 취업준비행동을 대학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회사에 취업을 목표로 하여 준비해 가는 일련의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측면에서 개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한예정(2014)은 개인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취업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해결하고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준비해 가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15]. 또한 취업준비행동은 교내 취업정보실 방문 및 주변인과 상담과정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희망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일 경험을 쌓는 등의 예비적 준비행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험 및 인터뷰 등의 본격적인 준비행동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고[16], 취업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격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취업준비행동이라 할 수 있다[17]. 선행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은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으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취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따라서 관광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설3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관광전공분야를 선택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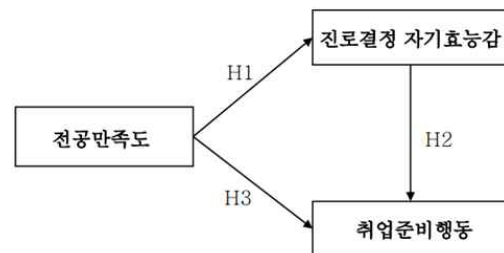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수도권 관광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 설정을 하였다.

가설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의 관광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1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성별, 연령, 학년, 학과, 취득한자격증, 전공선택동기, 취업희망기업, 취업희망분야, 취업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준비기간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이 명목척도로 9문항 구성되었고, 전공만족도가 23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8문항, 취업준비행동이 14문항으로 구성되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했다. 둘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크롬바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0명으로 36.9%를, 여자가 137명으로 63.1%로 구성되어 여자 비율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20세~21세가 136명 62.7%로 가장 많았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32.3%, 3학년 16.1%, 4학년 2.3% 순이었다. 학과는 카페바리스타(외식산업)과 32.3%, 호텔관광경영과

28.1%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취득한자격증으로는 바리스타 21.2%, 요리사 관련 18.9%이었고, 전공선택동기는 내가 원해서가 69.6%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희망기업과 취업희망분야는 각각 호텔과 식음료 및 외식분야를 가장 선호했다. 취업준비기간은 6개월 이상이 51.6%로 가장 많았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구분	명	빈도(%)	
성별	남자	80	36.9
	여자	137	63.1
연령	20세~21세	136	62.7
	22세~23세	55	25.3
	24세~25세	21	9.7
	26세 이상	5	2.3
학년	1학년	107	49.3
	2학년	70	32.3
	3학년	35	16.1
	4학년	5	2.3
학과	호텔관광경영과	61	28.1
	카페바리스타(외식산업)과	70	32.3
	호텔조리과	47	21.7
	항공서비스과	39	18.0
현재 취득 자격증	조주기능사	30	13.8
	소믈리에	20	9.2
	바리스타	46	21.2
	요리사	41	18.9
	기타	80	36.9
전공 선택 동기	내가 원해서	151	69.6
	부모님 및 주변 권유로	36	16.6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	7	3.2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11	5.1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5	2.3
기타	7	3.2	
취업 희망 기업	호텔기업	85	39.2
	리조트기업	6	2.8
	외식기업	58	26.7
	관광기업	3	1.4
	항공사	39	18.0
기타	26	12.0	
취업 희망 분야	식음료 및 외식분야	86	39.6
	객실 관련 분야	22	10.1
	사무 및 마케팅 관련 분야	19	8.8
	승무원 및 지상직 분야	39	18.0
	조리 분야	35	16.1
기타	16	7.4	
취업 준비 기간	1개월 미만	17	7.8
	2-3개월 미만	21	9.7
	3-4개월 미만	18	8.3
	4-5개월 미만	15	6.9
	5-6개월 미만	34	15.7
	6개월~1년 미만	51	23.5
1년 이상	61	28.1	

2.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

1) 전공만족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전공만족도 23개 항목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표2와 같이 실시하였다. 요인추출근거는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하였고,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3개의 요인을 ‘교과만족도’, ‘교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총분산 설명력은 74.298%였고, KMO(Kaser-Meyer-Olkin) 값은 0.955로 나타났다. 이 값의 유의 수준은 0.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만족도 23개 항목의 3개 요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크롬바알파(Cronbach’s α)계수는 ‘교과만족도’ 0.955, ‘교수만족도’ 0.933, ‘사회인식만족도’ 0.9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신뢰도 수준인 0.6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결과로 도출되었다.

표 2 전공만족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Results of Major Satisfaction

요인	항목 삭제시 신뢰도	요인 적재값	공통성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누적변량)
교과만족도	요인2	0.948	0.757	0.806	14.746 28.181% (28.181%)
	요인4	0.949	0.749	0.775	
	요인3	0.951	0.728	0.720	
	요인1	0.949	0.728	0.751	
	요인5	0.949	0.725	0.762	
	요인7	0.947	0.717	0.794	
	요인6	0.949	0.714	0.762	
	요인8	0.953	0.683	0.649	
	요인9	0.952	0.599	0.658	
교수만족도	요인13	0.918	0.813	0.794	1.313 23.484% (51.665%)
	요인12	0.921	0.784	0.765	
	요인11	0.915	0.774	0.796	
	요인14	0.916	0.748	0.785	
	요인10	0.929	0.665	0.666	
사회인식만족도	요인15	0.926	0.658	0.692	1.029 22.634% (74.298%)
	요인18	0.933	0.773	0.764	
	요인21	0.933	0.768	0.763	
	요인17	0.933	0.703	0.734	
	요인16	0.937	0.646	0.695	
	요인20	0.933	0.629	0.736	
	요인19	0.939	0.627	0.649	
요인22	0.930	0.626	0.779		
요인23	0.930	0.573	0.794		

N = 21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요인추출의 근거: 아이겐값(1.0)/ KMO(Kaser-Meyer-Olkin)=0.95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카이제곱=5129.212 자유도=233, 유의확률<0.000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8개 항목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표3과 같이 실시하였다. 요인추출근거는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하였고,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단일요인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총분산 설명력은 61.595%였고, KMO(Kaser-Meyer-Olkin) 값은 0.954로 나타났다. 이 값의 유의 수준은 0.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18개 항목의 단일요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크롬바알파(Cronbach’s α)계수는 0.962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결과로 도출되었다.

표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Resul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요인	항목 삭제시 신뢰도	요인 적재값	공통성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누적변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12	0.959	0.857	0.735	11.087 61.595% (61.595%)
	요인14	0.959	0.857	0.734	
	요인8	0.959	0.844	0.712	
	요인11	0.959	0.835	0.698	
	요인17	0.959	0.826	0.627	
	요인6	0.959	0.825	0.681	
	요인5	0.960	0.799	0.639	
	요인10	0.960	0.796	0.633	
	요인12	0.959	0.792	0.735	
	요인9	0.960	0.790	0.624	
	요인2	0.960	0.755	0.570	
	요인1	0.960	0.754	0.569	
	요인3	0.960	0.750	0.563	
	요인5	0.961	0.734	0.538	
	요인7	0.961	0.730	0.533	
	요인16	0.961	0.726	0.527	
	요인4	0.961	0.715	0.511	
	요인18	0.961	0.715	0.511	

크롬바알파(cronbach’s α) 계수 =0.962, N = 21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요인추출의 근거: 아이겐값(1.0)/ KMO(Kaser-Meyer-Olkin)=0.95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카이제곱=3205.370 자유도=153, 유의확률<0.000

3) 취업준비행동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취업준비행동 14개 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표4와 같이 실시하였다. 요인추출근거는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하였고,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2개의 요인을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으로 명명했다. 요인의 총분산설명력은 73.089%였고, KMO(Kaser-Meyer-Olkin) 값은 0.920으로 나타났다. 이 값의 유의 수준은 0.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준비행동 14개 항목의 2개 요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크롬바알파(Cronbach's  $\alpha$ ) 계수는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0.902,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0.958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결과로 도출되었다.

표 4. 취업준비행동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Results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요인	항목 삭제시 신뢰도	요인 적재값	공통성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누적변량)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요인3	0.890	0.793	0.664	8.605 41.983% (41.983%)
	요인6	0.896	0.764	0.602	
	요인2	0.885	0.738	0.649	
	요인1	0.626	0.727	0.567	
	요인5	0.881	0.691	0.698	
	요인4	0.884	0.668	0.642	
	요인7	0.878	0.638	0.754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요인13	0.947	0.906	0.891	1.627 31.106% (73.089%)
	요인10	0.949	0.885	0.845	
	요인12	0.951	0.875	0.823	
	요인11	0.952	0.859	0.798	
	요인9	0.950	0.840	0.825	
	요인8	0.951	0.837	0.814	
	요인14	0.961	0.636	0.661	

N = 21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요인추출의 근거: 아이겐값(1.0) / KMO(Kaser-Meyer-Olkin)=0.920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카이제곱=3114.470 자유도=91, 유의확률=0.000

### 3. 분석결과

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5와 같이 전공만족도의 3개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과만족도', '교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3개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beta$	t값	유의확률 (양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교과만족도	0.196	0.233	2.349	0.020*
	교수만족도	0.195	0.222	2.620	0.009*
	사회인식만족도	0.234	0.286	2.885	0.004*
상수=1.224 F=64.637 R <sup>2</sup> =0.477				* 유의확률 p<0.05	

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6과 같이 단일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 요인 중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Preliminary Job Preparation Behavior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beta$	t값	유의확률 (양쪽)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960	0.639	12.184	0.000***
상수=-0.69 F=148.450 R <sup>2</sup> =0.408				*** 유의확률 p<0.001	

표7과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 요인 중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3)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8과 같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3개 요인이 취업준비행동 요인중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과만족도’와 ‘사회인식만족도’ 2개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교수만족도’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7.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Full-scale Job Preparation Behavior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beta$	t값	유의확률 (양쪽)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618	0.325	5.042	0.000***
상수=0.679 F=25.423 R <sup>2</sup> =0.106				***유의 확률 p<0.001	

표 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 중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8.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Preliminar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beta$	t값	유의확률 (양쪽)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교과만족도	0.276	0.219	2.044	0.042*
	교수만족도	-0.064	-0.049	-0.534	0.594
	사회인식만족도	0.577	0.468	4.384	0.000***
상수=0.410 F=45.551 R <sup>2</sup> =0.391				*유의 확률 p<0.05 ***유의 확률 p<0.001	

표 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 중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9.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Full-scal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beta$	t값	유의확률 (양쪽)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교과만족도	0.458	0.278	2.228	0.027*
	교수만족도	-0.741	-0.428	-4.029	0.000***
	사회인식만족도	0.685	0.425	3.413	0.001*
상수=1.486 F=14.811 R <sup>2</sup> =0.173				*유의 확률 p<0.05 ***유의 확률 p<0.001	

표9와 같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3개 요인이 취업준비행동 요인중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3개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만 ‘교수만족도’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지만 이미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결정한 학생에게는 교수의 지도와 조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관광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 요인인 교과만족도, 교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도출되어 가설 1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대학과 각 학과에서는 전공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 수업만족도, 교과목별 맞춤형 교수법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단일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각 대학과 학과에서는 전공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환경,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수 상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취업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공만족도 3개 요인 중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에 대해서는 ‘교과만족도’와 ‘사회적만족도’ 2개 요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수만족도’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사전 정보탐색, 관련 자격증, 특강, 산업현장 견학, 교환학생 등에 대하여 교수의 상담과 지도보다는 학생들의 개별적 역량이 더욱 중요시되어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대해서는 전공만족도 3개 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교수만족도’ 항목만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가설은 채택되었지만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서 교수의 상담 및 개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각 학과에서는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앞서 전공 학생 개인별 맞춤형 취

업전략과 교수와 학생간의 취업상담에 대한 상담 방법의 개선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과 3은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채택되었으며, 가설 2는 부분 채택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기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 하면 전공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 수업만족도, 교과목별 맞춤형 교수법 등 대학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학생들이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앞서 전공 학생 개인별 맞춤형 취업전략과 교수와 학생간 취업상담 방법의 개선이 필요시 된다. 특히 전공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환경,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수상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취업준비 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 References

- [1] H. S. Moon, Y. K. Kim(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3), 929.
- [2] M. K. Lee, H. S. Han(2020). The effect of the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major-commi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29(6), 46.
- [3] Y. J. Song(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Ph. D.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4] E. H. Kim(2016).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Selfimage Congruity of Wedding Planner Majoring on Job Choice Intention,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5] S. Y. Kim(2022).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in Job-Seeking,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2(4), 232.
- [6] M. S. Kim(2015).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major Flow Experience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Employment Preparation,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 [7] K. E. Lee(2017). The Effect of the Motivations for Selecting Major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 in Hotel Management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the Job Preparation Actio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Tourism KyungHee University.
- [8] Wallace, G. R, & Walker, S. P.(1990). Self concept, vocational interests, and choice of academic major in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Journal*, 23(4), 361-367.
- [9]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ticce*, 18(1), 5-21.
- [10]Bandura, A.(1977). The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11]Hackett, G., & Betz, N. E., A(1981).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12]S. H. Yoon(2019).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 [13]ZHOU MIN(2022).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hines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onam University.
- [14]N. Y. Lee(2012). Analysis of Four-year College Female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by major Fiel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5]Y. W. Park(2017). The effect of hotel management students' career choice motivation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Tourism Sejong University.
- [16]W. S. Go(2014). A Study on the E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at perceived on the Employmen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17]Y. W. Park(2017). Ibid.

※ 본 연구는 2022년 오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